月間建築情報

7980. 2. 21～3. 20.

철도청 永登浦공작창 자리에 아파트 建設

仁川공작창 자리는 公売, 내년까지

2월20일 철도청에 따르면, 대단위 객화차 정비창 건설 계획에 따라 永登浦工作廠은 금년말까지, 仁川工作廠은 81년말까지 각각 현재 건설 중인 大田工作廠으로 이전, 통폐합하게 된다.

철도청은 6萬여평에 달하는 현 永登浦工作廠자리에는 鉄道長期勤続者중 무주택자를 위한 아파트를 건설 분양할 계획이며, 仁川工作廠 대지 7萬여평은 일반에게 公売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中東建設進出 10년 지속 가능 崔건설

단순공사는 한계에, 技術集約 型으로 전환해야

崔鐘浣 건설부장은 海外建設業体의 管理·技術 등 企業経営水準에 따라 앞으로 10년까지 対中東進出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바레인」등 中東3口을 순방하고 귀국한 崔장관은 2월21일, 中東各口의 건설패턴이 단순공사에서 복합공사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道路工事 등과 같이 단순 기술을 요하는 工事에서는 우리 業体들의 경쟁력이 사라졌으며, 앞으로는 下水処理場·上水道·電信電話施設工事·高層住宅·工場建設 등,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하는 분야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崔장관은 올해 海外建設受注目標 60억 달러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것이라고 전망하고, 앞으로 技術用役会社의 対中東進出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市道마다 太陽熱住宅団地

熱機器製造·施工管理 강화—동자부

動資部는 2월21일 市道商工局長会議를 열고, 熱管理指定対象業体가 종전의 석탄환산 연간 700톤 이상에서 500톤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모두 1,789개 업체가 열관리 대상업체로 되었으며, 이들에 대해 熱管理士의 채용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또 보일러 등 熱機器製造業体 및 施工業体의 관리도 강화,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無許製造業体 및 施工業体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各市道別로 1개 団地이상의 太陽熱住宅団地를조성하고, 釜山·光州·大田등 3개 도시에서는 오는 4월과 5월에 걸쳐 太陽熱展示会를 열도록 하는 한편, 鑛山村 정비에도 힘쓰라고 지시했다.

都心빌딩 賃貸低調, 空室率 5~10%

新築빌딩 予約低調, 企業体들 不況으로 싼곳으로

2월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완공될 예정인 서울 光化門의 大教빌딩은 아직까지 임대계약이 반밖에 차지 않았고, 明洞·南大門부근의 도심지 기존사무실빌딩에서도 5~10% 정도 방이 남아돌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재작년 極東빌딩이 완공되기 6개월 전에 이미 예약이 끝났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이다.

이같이 사무실이 남아돌고 있기 때문에 大宇·三星빌딩 등 대부분의 도심지 사무실 빌딩들은 매년 1·2월에 인상해온 임대료를 올해는 아직 올릴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있는 기업체들이 경비절감을 위해 사무실 임대를 줄이거나 싼 빌딩 또는 아예 변두리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의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주요빌딩의 평당 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 )내는 월 임대료.

△ 롯데=40만원(4만원), △ 東邦빌딩=32만원(3.2만원) △ 貿易会館 11.5만원(22만원), △ 教育会館=10만원(1만원), △ 海南빌딩=20만원(2만원) △ 大宇빌딩, 大然閣빌딩=28만원(2.8만원)

6층이상 新築아파트난방 複合配管式 의무화

低·高層部 同一温度유지 위해—서울시

2월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건설된 아파트들은 대부분 単線配管法에 따른 난방장치로 하여, 고층과 저층에서의 실내온도의 차이가 심해 연료가 불필요하게 소모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複合配管式 난방시설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신축되는 6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는 종래 下向式으로만 된 난방법대신 전체층을 절반으로 나누어 上·下向式 複合配管으로해, 고층부와 저층부가 같은 온도를 유지하게 한다는 것이다.

聯立住宅은 3층까지, 아파트는 4층 이상으로

住宅法改正施行令, 住宅債券매입대상도 확대

정부는 주택건설촉진을 위해,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住宅建設促進法施行令改正案을 마련 경제장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2월25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또 종래 2층 이하로 규정해온 聯立住宅의 층수를 3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아파트 층수의 하한선을 종래의 3층 이상에서 4층 이상으로 높혔다.

住宅事業者의 자금기준을 지금까지의 2,000만(개인5,000만원)에서 5,000만원(개인 1억원 이상)으로 높혔다.

또 住宅債券 매입대상의 경우, 종전에는 건물과 대지를 포함 1,000만 이상이면 해당되었으나, 이 개정안은 건물과 대지를 분리, 각각 500만원 이상이면 매입대상으로 했기때문에 영세한 주택도 매입하게 되었다.

이 개정은 이밖에 組合住宅建設 조합을 신설, △ 은행법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 보험업법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와, 상시 교용하는 근로자가 500명 이상 이거나, 연간 법인세 납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기업체의 고용자는 퇴직적립금의 50% 이상을 住宅資金으로 지원토록 의무화시켰다.

地下鉄 2号線(江北区間) 일제히 착공

都市 6개工区는 時差두고 시공

2월26일, 서울시는 총 18.8km구간의 地下鉄 2号線 江北区間工事(往十里~乙支路~市庁~新村~文來洞)를 착공 하였다.

서울시는 공사구간을 20개 工区로 나누어 乙支路를 비롯한 新村등 14개 工区는 우선 착공하고, 교통혼잡도가높은 市庁앞 西小門 東橋洞 西橋洞 등 都心 6개 工区는 이 지역의 교통상황을 보아가면서 時差를 두어 시공키로 했다,

竣工検査未畢建築物을 구제키로—

3月부터 실태조사후, 50평미만부터 단계적으로

정부는 오는 3월부터 4월말까지 전국의 無許 및 竣工未畢 기존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 오는 6월부터 우선 기존건축물 가운데 竣工未畢 住宅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양성화시킬 방침이다.

2월26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서울지역의 경우 再開発事業地区내의 無許建物은 133,300동이며, 이중 許可를 받아 건축하고 준공검사를 필하지못한 것이 20,800동에 달하고 있어, 이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단계적으로 연면적 50평(165m²)미만의 竣工未畢住宅을 양성화하기로 하였다.

정부와 공화당은 당초 주택난 완화라는 명제아래 전국의 무허건물을 양성화시킬것을 추진했으나, 建設部 및 서울市의 강렬한 반대로 일단 竣工未畢住宅만을 대상으로 竣工検査畢証을 교부하기로 합의, 1단계로 4월말까지 전국실태조사를 마친뒤 지난 연초 공포된 竣工未畢 既存建築物整理에 관한 特別措置法의 시행령을 5월중 마련, 6월부터 본격적인 구제 작업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정부가 현재, 구제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適法하게 許可를 받아 건축한 50평 미만(共同住宅은 전용면적)의 住宅, 대통령령에 의해 新築 또는 改良된 건축물과, 行政区域改編으로 새로이 建築許可対象地域에 편입된 建築物로서 △建蔽率을 초과한 건축물, △容積率을 초과한 건축물, 最高높이를 초과한 건축물, △소정거리를 위배한 건축물 등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5월말까지 竣工未畢建築物主가 시장·군수에게 設計図書 및 理場調査書를 첨부해 申告토록하고, 시장·군수는 竣工未畢 既存建築物審議委員会를설치하며 여기서 竣工畢誌교부 여부를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都市計劃 심의과정 公開 검토 —서울市

사전누설·投機를 막기 위해 都市計劃図 시판도

서울시는 2월27일, 都市計劃 심의과정을 일반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중요한 도시계획 정보가 도시계획 의결과정 때문에 市 자체만의 완벽한 보안이 어렵고 투기 붐을 일으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市 관계자는 都市計劃을 시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부터 매년 1/3,000로 住居·商業·工業·絲地등 用途地域 指定과 道路·橋梁 등 都市施設을 명시한 서울市都市計劃地図를 제작 市販하기로 했다.

서울地下鉄 3~4호선 着工, 84년 完工

3호선 : 구파발~양재동간 30km
4호선 : 상계동~사당동간 27km

서울地下鉄 3~4호선이 2월29일 기공식을 갖고 착공되었다. 이 3~호선은 23개 건설회사가 참여한 서울地下鉄建設株式会社에 의해 시공되는데, 3호선은 구파발~양재동간 30km, 4호선은 상계동~사당동간 27km규모로 총 5,700億원의 공사비를 투입, 오는 84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주요 통과지점은 다음과 같다.

3호선 : △碧蹄△三松里 △舊把撥 △佛光洞 △弘済洞 △独立門 △社稷공원 △中央庁 △安国洞 △敦化門△宗廟 △退渓4街 △將忠체육관 △金湖洞 △玉水洞 △狎鷗亭洞 △高速버스터미널 △教大앞 △良才洞

4호선 : △上渓洞 △雙門洞 △水踰洞 △彌阿 3거리 △서울運動場 △退渓路 △会賢洞 △서울驛 △三角地 △龍山 △二村洞 △銅雀洞 △舍堂洞 △果川

그린벨트管理 더욱 強化 —— 崔건설

太陽熱住宅 확대보급·断熱材사용 적극 권장

崔건설장관은 2월29일전국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각시도 건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항간에 나돌고 있는 開発制限区域(그린벨트)에 대한 일부 완화설은 근거없는낭설이라고 못박고, 개발제한구역이나 接道区域 등의 무허가 건축물을 철저히 단속 즉시 철거토록 하고, 기타 지역의 신발생 무허가건축물도 모두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또 에너지 절약을 위해 太陽熱住宅을 확대 보급토록 하고 断熱材使用을 적극적으로 권장, 住宅의 熱効率을 높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봄철을 맞아 붕괴위험성이 있는 건축물 축대 등을 철저히 점검, 사고를 미리 막도록 하고 특히 아파트 등 고층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강화토록 했다.

한편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82년~91년)의 확정에 대비한 각 시도별 계획을 금년 안에 수립토록 지시했다.

서울 光化門碑閣 6개월만에 復元

서울光化門碑閣(史蹟 171호)이 해체된지 6개월만인 2월29일 復元되었다.

총공사비 6,600만원을 들인 복원공사에서는 地盤이 내려앉는것을 막기위해 지하 10m까지 시멘트 페이스트를 수입하는 그라우팅工法을 썼고 木材도 모두 그대로 사용했는데, 썩은 목재는 인공목재와 화학처리로 보수했다.

農家 電化率 99.2%, 집집마다 自転車

TV는 1.3가구에 1대, 冷蔵庫는 10가구에 1대

3월4일 농수산부가 79년말을 기준으로 조사한 農家文化用品保有現況에 의하면 라디오는 가구당 평균 1대씩, TV는 1.3가구당 1대꼴로 4가구중 3가구가, 선풍기도 1.5가구당 1대꼴로 3가구중 2가구가 보유하고 있다.

冷蔵庫의 보유도 크게 늘어, 78년의 1,000가구당 38대에서 79년에는 93대로 144.7%의 보급증가를 보였고, 録音機도 105대에서 207대로 97%, 電気밥솥은 182대에서 305대로 67.7%, 電気다리미는 459대에서 599대로 30.5%가 늘었다.

時計는 가구당 2.6개, 裁縫틀은 1.3가구당 1대, 카메라는 34.5가구당 1개, 自転車는 1.2가구당 1대, 오토바이는 37.7가구당 1대꼴로 보유하고 있다.

電化農家는 99.2%로 거의 全農家에 보급돼있는 반면, 上水道는 23.3가구당 1개소밖에 설치돼 있지 않아 아직 農家의 절반 이상이 상수도 혜택을 입지못하고 있다.

電話는 10.8가구당 1대꼴로 보급돼있고, 新聞은 5.5가구당 1부씩 구독하고 있다.

住公아파트建設 서울지역에도 계속

住宅請約賦金加入늘고, 住宅難 심화되어

3월 4일 건설부에 의하면, 당초 서울지역의 인구분산과 지방공업도시 사업량확충 등을 위해, 금년부터 서울지역에서는 住公아파트를 더이상 건설않기로 방침을 세웠었으나, 口民住宅請的賦金에 가입한 무주택자가 15,000여명에 이르고, 주택난이 갈수록 심화되는데다, 住公아파트사업의 중단만으로는 인구분산에 별다른 효과를 거둘 수 없기때문에, 주택난해소를 위해 住公아파트建設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13평형 賃貸住宅을 건설하여 철거민과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키로 했다.

政府工事 最低有効入札制 채택크기

덤핑投札따른 不実工事방지코저, 2/4 분기부터

3월 4일 재무부, 조달청 등, 政府施設工事 유관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最低入札制度를 폐지하고 最低有効入札制度를 새로 채택키로 방침을 확정, 늦어도 2/4 분기부터 이의 시행을 목표로 관계법규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다.

이번에 새로 채택키로한 最低有効入札制度는 예가의80%선을 공사실행선으로 책정, 80% 이하의 投札은 실격시키되 예가의 80%선에 가장 가까운 투찰을 낙찰시키는 방식이다.

이같이 입찰제도는 지금까지 정부가 이미 시행한바 있는 敷札制와 현행 最低入札制度의 장단점을 모두 보완한 것으로, ①예가의 80%선이하 투찰을 제외 ; 예가와 예가 80%선 이상에 투찰한 技札総額의 平均価에 가장 가까운 技札을 最経落札로 결정하던 敷札制가 공무원의 재량권을 제한한다는 장점과 함께 무모한 요행성을 내포한 입찰제이며, ②현행 最低入札制는 과당경쟁과 덤핑投札로 초래되는 不実工事 및 業界의 출혈경쟁으로 인한 不実化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単種建設業体 대폭 정비 —건설부

4월중 정밀조사후 更新보류·取消 등 조치

3월 4일 건설부에 의하면 지난 76년에 시작된 建設業単種免許制度는 그동안 각 市道에서 수시로 면허를 발급해왔기 때문에 면허업체수가 국내 건설시장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工事受注를 둘러싸고 각종 부조리가 심하고, 불실 또는 도산업체까지 속출하고 있어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1.2차에 걸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에서 ① 면허대여업체, ② 기술자 및 기능공의 일시보유등 위장업체, ③ 自社장비가 없는 업체, ④ 면허취득후 1년동안 영업실적이 없거나 ⑤ 부조리 상습업체등을 중점적으로 가려낼 방침이다.

건설부는 불실업체로 드러나면 免許取消 또는 新規免許 발급유보 등 강경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런데 単種免許制度는 건설업계의 専門系列化를 위해 도입된것으로서, 그동안 木工 등 모두 20개 종목에 걸쳐 4,400여의 면허가 발급되었다.

서울市庁移転, 設計·予算준비없다 — 鄭市長

国会内務委員들 ,保留를 촉구

鄭 서울시장은 4월 5일, 서울시청의 江南移転問題와 관련「현재 부지만 확보했을뿐 設計와 予算策定이 전혀안돼 있다. 市庁移転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아 구체적인 이전계획은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하였다.

鄭市長은 이날 국회 内務委 소속 의원들과 사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市庁의 江南移転計劃의 사전 누설때문에 不動産価가 폭등하고 転売行為가 많이 일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 市当局과 国税庁 및 수사기관에서 현재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내무위원들은 간담회에서 오일쇼크와 물가고로 인한 경제난국에 처해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많은 현시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市庁을 옮긴다는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 앞으로 새정부가 탄생되면 그때까지 검토하도록 하라고 市庁移転計劃 保留를 촉구했다.

80년도 建設業景気 好転 기대어려워

公共部門建設投資저조등 때문—建協

3월 6일 大韓建設協会가 전국 524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80년도 建設業 景気予測(BSI방법)에 의하면 경기실사지수가 1/4분기 87.1, 2/4분기 92.0, 3/4분기 100.3, 4/4분기 96.1%를 나타내 79년도 분기별 실적보다는 상승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평균수준 100에 못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우기 연초부터 1·21 조치 및 1·29 환율조정 등 경제조치로 인해 별도의 보완시책이 없는한 건설경기는 침체될 기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협회는 이와같이 저조하리라 예측한 이유로 ① 政府工事 建設単価와 실제단가의 격차로 인한 差損負担의 증가 ② 公共部門의 建設投資物量의 저조, ③ 建築規制 해제에 따른 설비투자 회복까지의 기간 소요 ⑤ 建設資材 需給 및 価格의 유동성 ⑤ 労賃 증가 ⑥ 海外建設部門의 감퇴 ⑦ 財政·金融 緊縮 등을 지적했다.

서울市庁移転 事前漏泄事件

서울市職員 3명 구속, 1명 수배 중

서울市庁 이전부지 事前漏泄事件을 수사중인 서울地検 특별수사 2부는, 3월 7일 서울市 都市計劃担当 직원들이 청사부지를 공식발표하기 전에 친지와 동료들에게 [illegible]선했다는 확증을 잡고, 서울市都市計劃局 都市計劃 1課 地域計劃 2係長 李某씨와 同係 徐某씨 등 2명을 공무상 기밀누설혐의로, 徐씨에게 돈을 주고 정보를 빼낸 서울市 税務局 黃某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都市計劃 1課長 柳某씨를 수배했다.

이번 누설의 지원지인 都市計劃局은 都市計劃 1·2 課로 나뉘어 있으며, 1課는 都市計劃基礎調査를, 2課는 都市計劃審議委員会를 주관하고 図面을 작성 확정하도록 업무분담이 돼있으나 1·2課에서 모두 예정도면을 보관해 누설의 위험이 그대로 방치될만한 상태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住居地域内 非公害工場 건축허용, 首都圈제외

종업원 확보·통근단축 등 장점, 建築施行令 개정키로

3월 7일 건설부에 의하면 電子·縫製·精密機器·玩具 등 ① 公害업종이 아니고 ② 労動集的型 工場의 경우는 이를 住居地域에 두는편이 오히려 土地利用率을 높히고 종업원의 안정적인 확보, 통근거리 단축 등의 잇점이 있어 外口例를 참작 建築法施行令을 개정키로 하였다 .

건설부는 都市計劃関係法規를 개정하지 않고 1단계로 建築関係法을 개정, 工場建築을 허용할 방침이며, 이 제도의 정착화와 시행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도시계획관계법규도 개정, 업종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현재 首都圈의 人口密集을 감안, 수도권은 그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주거지역인 아파트団地 등은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현재 住居地域내에서 가동중인 工場중 非公害業所이면 改築도 허용할 계획으로 있어, 住居地域내 公害業所라도 非公害業所로 전환, 가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건설부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 建築法施行令을 고쳐, 4월부터 실시한다는 방침아래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政府工事代金, 준공후 15일내 支払義務化

遅滞補償金 적용도 강화—財務部

財務部는 3월10일자로 정부회계 예규중 "施設工事契約一般條件"을 개정하였는데, 지금까지 발주관서가 자금사정이 허용하는 한 계약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既成分은 1주일 이내에, 竣工分은 15일 이내에 지불토록 되어있던 임의규정을, 발주관서의 자금사정에 관계없이 既成分은 1주일내에 竣工分은 15일내에 工事代金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에따라 工事代金 支払條件이 크게 개선되었는데, 지금까지 발주관서의 늑장으로 오래동안 지연되는게 보통이었다.

정부는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일내에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자에게 支払不履行事由書를 서면통지토록 했다. 이같은 정부공사 계약규정은 地方自治団体까지 준용된다.

한편 정부는 건설업자가 준공을 지체시킬때에는 계약서에 정한 遅滞補償金을 반드시 공제하도록 해, 계약공무원의 裁量权을 대폭 축소시켰다.

国税庁, 所得標準率을 조정 住宅新築판매 등은 引下, 練瓦제조등은 引上

79년도 所得税에 적용할 所得標準率은 전년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거치시키고 不誠実申告業者에 대한 加算率(소득표준율의 30~150%)은 폐지, 과중한 税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대신 불성실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3월10일 口税庁은 대상종목을 전년도 보다 3개 많은 861개로 하고 그중 19개를 인하, 22개는 인상 조정했다. 全種目의 평균소득표준율은 10.04%(78년, 10.05%)로 추정되며, 관련종목 조정내용은 △ 土石少石接取(20→16%) △ 住宅新築판매(18→16%) △ 地籍測量(30→28%) △ 보통壁紙제조(7→8%) △ 練瓦제조(8→10%)이다. (78년→79년 소득표준율).

始興群 鉄山里에 대규모 근로자 住居, 団地조성

82년까지 아파트 8'500家口 건설

정부는 서울에 인접한 京畿道 始興群 鉄山里 일대에 인구 약 5萬 규모의 대규모 근로자 住宅団地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3월11일 건설부가 발표한 鉄山里 住宅団地開発計劃에 따르면 금년부터 82년까지 3년간 총공사비 911億원을 들여 철산리 일대 약 15萬평을 개발, 工団근로자를 위한 寄宿舍형 아파트 4,000가구를 올해 부터 81년까지 건설하고, 일반서민용 아파트 4,500가구를 82년까지 건설하는 등 모두 8,500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키로 했다.

단지조성은 住公이 用地를 매입, 건설을 맡게되는데 오는 6월 착공, 연말까지는 1차 입주를 마칠 방침이다.

鉄山里개발은 77년 首都圈人口分散策의 일환으로 서울의 철거민 등 무주택 서민을 이주시키려 했으나 제 2의 城南이 된다는 여론 등으로 인해 계획을 포기했었다.

商業用 建築景気 回復勢

建築許可面積 작년同期比 9.8배

3월13일 경제계획원이 발표한 월간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중 전국 15개 주요도시의 建築許可面積이 1,342,000㎡로서 1월보다 14.3%, 전년 동기보다는 59.1%나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용도별로 보면 住居用은 48만㎡로 40.6% 증가하고 商業用은 67만 4천㎡로 무려 9.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중 전국의 建築許可面積도 184만 7천㎡로 전년동기보다 33.4% 늘어났는데 住居用이 77.6%, 商業用이 160% 증가하였다.

景気의 主要指標인 국내건축활동이 작년 12월을 고비로 活況勢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내경기가 일단 바닥권을 벗어나고 있는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建設業 受住動問을 보면 1월중 국내건설 受住総額은 497억원으로 前月에 비해 79.8%, 전년동기에 비해 29.5% 줄어들었는데 이는 会計年度가 바뀌는데다 建設業의 계절성때문에 工事発住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를 발주자별로 보면 公共発住가 55.8%인 278억원, 民間発注가 42.5%인 211억원이며, 5,000만원 이상의 大型工事가 총수주건수 135건중 82건으로 60.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2월중 물가는 都売가 14.9%, 消費者가 4.4% 각각 올라 25년만에 최고로 치솟아 올들어 2월말 현재 都売 17.6% 消費者는 7.9% 오른것으로 나타났다.

宅地開発促進法(가칭) 제정을 검토

都市宅地難 해소 위해 関係法 単一化

3월15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현재 宅地開発事業은 都市計劃法·土地区劃整理事業法·住宅建設促進法에 따라 실시되며, 그 사업의 종류도 도시개발예정구역 조성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아파트지구개발사업·국민주택용지 조성사업 등 다양화되어있고, 事業主体도 市長·郡守·허가받은 민간인·토지소유자·住宅公社·住宅建設指定業者 등 다원화되어 있으며 開発節次도 복잡하므로, 単一化된 宅地開発 근거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위의 여러 法 가운데 宅地開発에 관한 관계조항을 통합宅地開発促進法(가칭)을 제정하고 事業主体와 節次를 간소화하며 대도시 지역내 未開発土地의 宅地化 및 염가의 住地取得을 뒷받침함으로써 주택건설을 촉진할 방침이다.

住宅標準設計図, 올해 60종 보급 예정

建資材 品質向上, 工事監理制度 강화

정부는 住宅標準設計図자 보급 확대와 건축자재의 품질향상, 시공감리제도의 강화 등을 골자로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종합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3월17일 건설부는 우선 住宅建設을 표준공법에 따르도록 유도하기 위해 住宅標準設計図 60종(도시형 30종, 농촌형 30종)을 새로 만들어 보급키로 했다.

또 건축자재의 품질을 높히기 위해 KS 규격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불량품질 건자재 생산업체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監理専担 建築士制度를 도입하는 한편,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建築補助士를 상주시켜 감리토록할 방침이다.

玉浦에 人口10萬의 背後都市 건설

'85년까지 '290萬坪규모' 626億원 투입

정부는 금년말 준공예정인 玉浦造船所와 三星造船所의 生産性을 높히고 地域社会開発을 촉진하기 위해 금년 下半期부터 85년까지 연차적으로 626億원을 투입 玉浦에 人口10萬을 수용하는 背後都市를 건설키로 했다.

3월17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造船工業은 労動集約的인 産業이어서 종업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住居環境造成이 절실하다는 점을 고려, 배후도시 건설계획을 서둘러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제계획원·재무부·상공부·건설부 등 관계부처는 造船工業 취업자 2萬74여를 포함, 계획인구 10萬을 수용할 수 있는 290萬坪 규모의 배후도시를 건설한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4월중 경제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건설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建材등 品質 KS 수준으로 —— 工振庁

32개품목 100개工場 集中技術指導

3월18일 工業振興庁에 의하면,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32개 품목을 선정하고 이달부터 집중 기술지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들 32개 해당품목 생산업체중 시법업체 100개를 선정, 전문기술자를 직접 현장에 파견 KS 표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現場指導를 실시함과 아울러 老朽施設대체, 신규시설 도입에 따른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기술지도내용은 제품을 KS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법적 규제기준 해설과 아울러 불량요인 개선지도, 정밀한 제품생산을 계량계측 관리지도, 기타에너지 및 자원 절약방안지도 등이다.

기술지도 대상품목(건축자재)는 다음과 같다.

△도어 크로우저 △위생도기 △쇠붙이 △체결용 나사못 △타일 △루우핑 △단열재 △도료 △못 △방열기구 부속품 및 주철관 △알루미늄 압출형재 및 새시, △경첩 △창호용 레일 △창호용 도르래 △욕조 △안전보조쇠걸이 △각종 손잡이

91년까지 住宅供給率90.2%, 投資率 GNP의 6%로

올해 건설목표30萬戶 확정—住宅審議会

정부는 3월18일 住宅政策審議会를 열고 현재 76.5% 수준에 머물러있는 住宅供給率을 오는 91년까지 90.2%로 높히기 위해 앞으로 12년간 해마다 住宅部門 対GNP 投資率을 현 3.8%에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長期住宅建設計劃과 올해 建設目標 30萬戶를 확정, 실시키로 했다.

이날 심의회는 이러한 장기계획의 확정에 따라 平均住宅規標 15평 내지 20평의 주택을 올해부터 91년까지 연평균 44萬戶씩 건설, 모두 536萬戶를 건설키로 했다.

올해 건설목표 30萬戶는 公共部門에서 11.2萬戶, 民間部門에서 18.8萬戶씩 각각 공급키로 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都市지역에 24.1萬戶, 農村지역에 5.9萬戶이며, 형식별로 보면 共同住宅이 10.5萬戶(35%), 単独住宅이 19.5萬戶(65%)이다.

전국 主要江 上流에 工場新築不許

정부방침— 심화되는 水質汚染막기 위해

정부는 3월20일, 날로 심화되고 있는 水質汚染을 근원적으로 막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漢江·洛東江·榮山江 등 전국 주요 江의 上流地域에는 앞으로 大型工場 新築許可를 일체 허가않을 방침이다.

또 既存工場이라도 汚染物質 배출량이 많은 업소에 대해선 工業配置法上의 移転命令을 발동· 江下流나 水質汚染 염려가 적은 지역으로 따른 시일 안에 재배치할 계획이다.

이와같은 水質保全対策은 環境庁이 商工·建設·農水産部 등 관계부처와 협의아래 추진하게 된다.

현재 전국에는 江上流나 上水源 인근지역 등에 150개의 오염물질 다량배출 업소가 위치하고 있다.

新刊

韓國傳統木造建築圖集

1. 柱心包式建築
2. 多包式建築
3. 折衷式建築
4. 翼工式建築

- 민도리집建築
- 東洋三國의 傳統木造建築 年表
- 圖版解說
- 찾아보기

編著者 韓國建築家協會

값 15,000원

發行處 一志社